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30 권 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62)	봉헌 (217)	성체 (164)	파견 (6)
---------	---------	----------	----------	--------

제1독서 | 이사 49,3-6

화답송 | 시편 40(39),27과 47과.7-8과.8다-9.10(8과 9과)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 1코린 1,1-3

복음환호송 | 요한 1,14.12 참조

-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 | 요한 1,29-34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2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19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6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2/2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350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36	\$	\$1,3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5	김 마론/ 김 헬레나	1/11	유 요한/ 유 마리아
2/22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8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29	손 아놀드/ 손 쟈마	1/25	홍 마르코/ 홍 아녜스
3/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	김 요아킴/ 고 안나
3/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2월 6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다음 임원회의는 2월 2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에페소서):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omeless Feeding 2월 1일 st. Vincent de Paul center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매년 해오던 홀리스 조식봉사를 위의 날짜에 하게되었습니다.

양말 선물을 위한 헌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따뜻한 정성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양말 선물 봉투를 형제 자매님과 같이 만들기를 희망 합니다.

2020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그레이스 자매님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요나서'로 연극하기

-임주빈 모니카 | KBS 심의위원, 시그니스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서울 회장

지난해 가을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대학교 문화학교에서 <'요나서'로 연극하기>라는 강좌를 들은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아는 내용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연극이나 구연동화로 한 번쯤은 접해봤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1주일에 두세 번 '요나서'를 읽는 것이 기본 과제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대한 신부님의 해설 시간이 있고, 요나서를 읽고 각자 느낀 점을 에세이나 연극 대본으로 써서 발표합니다. 최종적으로 수강생들이 함께 짚막한 낭독극이나 연극을 만들어 종강 미사에서 발표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그동안 이야기 중심으로 피상적으로만 알던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히브리의 예언자 요나가 왜 하느님 말씀을 피해 달아났다가 물고기 배 속에 갇히고 말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런 요나의 심경에 깊이 공감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반발했던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 이민족에게까지 차별 없이 베푸시려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나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하느님이 행하시는 공평함의 간극은 왜 이렇게 큰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믿음을 멀리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악한 이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요나서'로 연극하기> 수업은 하느님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주님께겐 모든 피조물이 사랑과 구

원의 대상이기에, 절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인들에게 회개 할 기회를 그렇게 수없이 주시는지 못마땅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인들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을, 못되고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님 안으로 이끄시려는 것이 불만이었던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나 속 좁고 편협했습니다. 우리 편, 네 편 갈라서 우리 편만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편견의 눈을 거두고, 편 가르기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요나서'로 연극하기> 수업을 받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음을 느끼게 해준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학기 문화학교에는 또 어떤 강좌들이 있을지 찬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복음묵상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말져라

계획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언 16:3-

-서울주보에서-